



## 아르헨티나, 사출성형기 시장동향 대리점 통한 브랜드 인지도 및 시장 점유

최근 2년간 아르헨티나 내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40% 상승했으나, 정부의 가격통제 정책으로 비용 손실이 증가해 관련산업의 수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아르헨티나 플라스틱 산업협회(CAIP)에 따르면 2006년 플라스틱 관련업체 수익률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15~20% 감소했으나, 최근 자동차 등 관련산업 수요 증가로 인해 2008년 생산량은 10.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사출 성형기는 자동차, 용기, 신발, 화장품 용기 등 거의 모든 플라스틱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사출성형기 경우, 간단한 제조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며 현지 시장은 주로 실수요자가 직접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와 대리점 또는 공급업체가 수입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유통 구조가 있다.

중국 제품 Haitian의 경우 현지 Necher사가 수입, Che Hsong 경우, 현지 Eldan Electronica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고, 그 밖의 유통 브랜드로는 독일의 Ferromatic 및 Demang Ergotech, 이탈리아의 BMB 및 Negri Bossi 제품이 있으며, 일본의 Nissei 및 Toshiba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사출성형기 수입 제품 대부분은 유럽 제품으로, 현지 시장에서 가격보다는 품질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선점하고 있으며 2005년 대비 2007년 일본과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이 1백 31%, 1백19% 증가했다.



사출성형기 제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대비 2007년 85% 증가, 유럽 및 중국·대만·일본 제품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제품 수입은 감소해 2007년 수입 통계기록이 없다.

중국 및 대만 제품이 최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현지 시장 진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에이전트나 대리점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및 시장 확보가 중요하다.

### 베트남, 펄프·제지산업 투자매력 높아 포장용지, 고급 인쇄용지 수요 증기할 듯

베트남 펄프·제지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의 펄프·제지산업은 지난 1989년 개혁개방(도이머이 개혁) 이후 20년간 연평균 15~16% 이상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10년까지 연평균 17.8% 이상 성장하는 등 향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유망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트남 펄프 생산량은 지난 1989년 연산 8만톤 규모에서 2007년 1백13만톤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주요 생산품은 기술력이 낮아 신문·프린팅 용지·무코팅 포장용지와 휴지 종류로 활용도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베트남 펄프제지 국내 수요의 61.9%만이 내수생산으로 충족되고 있으며, 베트남 제지생산은 2006년도 9백58만톤에 불과해 전년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White-Top지의 성장세가 매우 빨라 21%의 상승률로 베트남 전체 제지

생산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베트남의 제지 소비량은 전체 1백55만4천5백78톤이며, 전년대비 17% 증가했으며 포장용도로 대부분의 제지가 소비됐으며 15% 정도가 프린팅 용지에 소비 됐다.

베트남 제지 종류별 자체 공급률을 살펴보면, votive 용지가 1백% 자체공급이 되지만 신문용지가 73%, 포장용지가 50% 수준, 코팅용지는 9%만이 자체 공급되는 등 산업기반기술 부족과 영세한 기업 형태로 인해 자체 공급률이 매우 제한된 수준이며, 고급 포장용지와 고급 인쇄용지에 대한 수입이 많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 베트남 제지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기타 비용의 증가로 가격이 10~40%의 큰 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운송용 판지가 가격은 톤당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1천1백달러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물가인하 노력과 제지원료인 펄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1~3%의 수입관세를 0%로 인하해 베트남 제지산업의 원자재 가격을 낮추기 위한 관세정책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펄프·제지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의 관련 산업에 총 6백만달러 규모의 투자 지원금을 확충할 예정이며, 국내 내수지급과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과 기업투자 유도를 추진 중이다.

현재 베트남 펄프·제지관련 기업 수는 전체적으로 3백개로 추정되며, 이 중 20개 기업만이 연산 2만톤의 생산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전문 숙련인력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베트남의 국내 최대 펄프공장 단일 생산량은 현재 연간 6만톤 규모에 불과하나 중국은 1백만톤에 달

하는 등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베트남 펄프공장은 많은 초기자본이 소요되는 반면, 자본회수 기간은 평균 20년 이상으로 투자자본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펄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베트남 제품 기술력은 물론 생산성 또한 저임의 단순 노동력을 기본으로 일 본의 1/5에 불과한 상황으로 향후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파키스탄, 포장기계류 수입규모 지속 확대 산업시설 현대화 및 품질제고 노력

파키스탄 플라스틱 포장산업은 연간 15%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6천2백42억톤 수준으로 추정되고 고용규모는 4백만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은 최근의 경제 활성화 및 정부의 산업시설 현대화 정책에 따라 기계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장 경쟁심화에 따른 품질제고 노력으로 인해 포장기계류의 사용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6년에서 2007년 회계연도 중 파키스탄의 포장기계 수입금액은 약 2천6백만 달러를 기록, 불과 2년 사이에 수입규모가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병(PET 병 포함) 제조기계의 도입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 시장에서는 대만 포장기계류가 저렴한 가격과 A/S 만족도를 앞세워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제품의 비중도 높아지는 추

세이다.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파키스탄 기계류는 '수입상→공급업자→도매업자→최종소비자'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며, 고가제품은 바이어 자신이 공급업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실 수요자들은 위험 감소 등의 이유로 에이전트를 통한 구매를 선호하고 있어 기계류 수입에 따른 에이전트 커미션은 7~10% 수준이며, 분기 단위의 커미션 결제를 선호한다.

파키스탄이 저가제품 위주의 시장임을 감안, 경쟁국(회사) 제품의 현지 시장가격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합리적인 가격제시가 요구되며 또한 중국제품에 비해 우월한 품질 및 일본 및 유럽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 품목의 구성이 필요하며, 품질보증·A/S 등에 대해 합리적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수요자의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북미, 골판지원지 시장 불황 지속 달러화 약세 딛고 수출 증가해야

북미 골판지원지 시장이 불황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주요 골판지원지 생산업체들의 톤당 50달러 가격인상 시도는 전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미국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수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미 골판지원지 생산업체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으



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1월부터 가격인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8월에 아시아 가격인상을 완료했던 2007년을 비교하면서 올해에도 골판지원지 생산업체들의 가격인상 시도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북미 골판지원지 시장은 미국 경제 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라이너와 골심지 가격 모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몇 업체들은 톤당 10~30달러의 가격할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장 관계자들은 수출 물량의 증가로 인해 골판지원지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고 당분간 지금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끝없이 상승하는 원료가격 상승을 골판지원지 생산업체들이 계속 버틸 수 있을 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골판지 상자의 수요도 여전히 미미한 상태로 수요증가로 이어질 만한 호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美, 비스페놀-A, 비만과도 관련 발표

BPA,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성분

최근 플라스틱 젖병에 들어있다고 해서 안전논란이 제기된 비스페놀-A(BPA)를 비롯, 일상용품에 흔히 쓰이는 3가지 화학물질이 비만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네바에서 개최된 2008 유럽비만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 미국의 과학자 3명은 이날 개별적인 연구발표를 통해 임신직전에서 출산직후에 BPA, 퍼플루어로 옥탄산염(PFOA), 트리부틸린(TBT)에 노출되면 태어난 아이가 비만이 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BPA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성분

으로 플라스틱 식품·음료용기에, PFOA는 방유제(greaseproofing agent)로 피자박스, 달라붙지 않는 팬 등에, TBT는 식품포장 랩, PVC수관(水管)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비벌리 루빈 박사는 쥐가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일 때 BPA에 노출되면 그 새끼들이 나중에 다 자랐을 때 체중이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쥐들은 다른 쥐들과 먹는 양과 활동량이 같아도 살이 찼다고 루빈 박사는 말했다.

미국환경보호청의 생물학자 수전 펜턴 박사는 PFOA에 노출된 쥐가 낳은 새끼는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적고 나중에 자라면 지나치게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대학 생물학교수 브루스 블룸버그 박사는 TBT에 노출된 쥐가 낳은 새끼는 지방세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해 체중이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TBT는 체중증가와 관련된 유전자를 변이시키고 체중증가와 관련된 대사기능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박사는 말했다. 이 연구 결과들은 일부 사람들은 출생 전에 비만 프로그램이 입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연구팀들은 밝히고 있다.

### 중국, 폐지수입 47.1% 증가

국제 폐지가격 인상 주요 원인

중국 내 폐지는 사용됐거나 버려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고급지에서 공업용지·신문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국 제지산업의 주요 원재료인 폐지는 2007년 이래 수입량 증가와 수입가격 인상이 지속돼, 국제 제지상품 공급과 제지업·출판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해 중국 폐지수입은 2천2백56만톤으로 40억4천만달러 규모이며, 전년동기대비 각각 15%, 47.1% 증가했다.

지난 해 중국 외국기업에 의한 폐지수입량은 1천4백48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했으며, 이는 총 폐지 수입량의 64.2%를 차지하며, 사영기업은 3백66만1천톤 수입, 7.7% 성장, 국유기업은 2백72만6천톤 수입, 전년대비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EU이며, 수입량이 전체의 72.5%에 이르러 이들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에서 9백32만5천톤 수입(약 17억8천만달러), 유럽으로부터 7백3만1천톤 수입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9%, 28% 증가했다.

폐지 수입의존도는 2000년 60%에서 55%대로 의존도가 낮아진 반면, 목재 펄프의 수입 의존도는 29%에서 51%로 급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해 중국의 수입산 폐지 평균 가격은 1백79.2달러/톤에 달했으며, 지난해보다 27.9% 증가했으며 지난 해 1월의 수입산 폐지의 평균가격은 1백51.4달러/톤에서 11월 2백2.3달러/톤, 12월 2백9.3달러/톤에 달하는 등 2008년의 폐지 수입 가격은 지속 인상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지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제지 원자재 수요 증대, 중국 내 낮은 폐지 회수이용률, 목재펄프 원료의 수입폐지 품질이 중국산 밀짚펄프보다 우수해 수입산 선호, 중국정부가 2006년 1월 발표한 목재 펄프가공무역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펄프 대체 원료의 수요 증대 등의 요인들로 폐지 수입량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 폐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는 제한된 국제시장 내 폐지 공급을 감소시켜 폐지의 국제가격 인상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환경보호총국은 지난 해 11월 1일부터 폐지 수입의 심사와 비준을 제한하고, 폐지 수출권한 획득 기업의 관리강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목재·목재 펄프 및 비목재펄프의 수출을 제한하고 수출 환급관세 폐지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중국정부에서는 국내 폐지 회수율을 지금의 31%로부터 34%, 폐지 이용률을 32%에서 38%로 제고하는 목표를 수립, 해당 정책 시행으로 2010년 목재 펄프·폐지 펄프·비목재 펄프의 구조를 26%, 56%, 18%로 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성공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폐지회수 분류 표준을 작성하고, 지방정부의 폐지회수의 관리규정 제정을 독려해 대형 폐지경영기업·폐지회수 거래 시장 설립 등 향후 폐지 회수관련 규정을 규범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중국의 폐지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되며, 국내 폐지 수출업체는 중국 수출시장 확대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중국 제지산업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 중국 공업용지 및 판지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6천5백만톤, 6천6백만톤에 달해 세계 제2의 시장이며, 또한 최근 3년간 제지 산업 연평균 누적성장률은 11.15%에 달해 2008년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각각 8천10만톤, 7천8백68만톤에 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제지산업이 자본집약적이며, 투자에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들을 감안할 때 최근 이어지는 폐지 수요 증가분을 대체할 충분한 공급이 힘든 상황으로, 향후 수년간 폐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